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을 통해 본 소쉬르의 가치이론: 언어가치 개념과 삼차성 개념의 비교 고찰*

이윤희**

I. 가치의 개념

기호학의 양대 산맥으로 알려진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와 퍼스(Charles S. Peirce)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호 연구의 영역을 개척하였다. 언어학자로서 소쉬르가 기호시스템을 통해 언어를 연구하였다면, 논리학자로서 퍼스는 규범과학으로서 기호학의 이론을 정립하였다. 두 기호학자의 기호 이론이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두 기호 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도 시도되었다.¹⁾ 유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소쉬르의 언어가치 이론과 퍼스의 삼차성의 개념과의 연관성을 통해 두 학자의 기호 사상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소쉬르 언어학에 나타난 가치의 개념이, 일반성의 재현이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퍼스의 범주이론²⁾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61-A00013).

** 한국의국어대학교

1) 소쉬르와 퍼스의 비교 연구로는 제라르 들르달(G. Deledalle), “소쉬르와 퍼스의 언어사상”, 『소쉬르의 현대적 이해를 위하여』, 정병기·김현권 편역, 박이정, 1998, 252-260쪽; 피에르 기로, *Semiology*, Routledge and Kegan Paul, 1975; 크리스천 스테터, “Peirce und Saussure”, *Kodikas/Code* 1, 1979, pp.124-149; 제임스 리슈카, *The Semiotic of Myth*,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pp.48-57를 참고하라.

리는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을 통해 소쉬르의 언어가치 개념이 분석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소쉬르의 언어가치의 개념과 퍼스의 삼차성의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두 상이한 기호체계에서의 실재개념을 비교 고찰하게 될 것이다. 포괄적인 연구의 틀은 소쉬르의 이분법적 구분인 랑그와 파롤, 형식과 실질, 결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 그리고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의 구분에 기초하며, 네 쌍에서 앞의 항에 관심을 둔 소쉬르에 따라, 가치의 개념을 살펴본다. 특히 소쉬르가 공시적 연구 방법을 통해 언어의 형식을 연구한 점을 부각하여 언어 기호의 재현적 성격을 언어 체계의 외부의 관점인 퍼스의 범주이론을 통해 살펴본다.

그레마스과 쿠르테스(1982)에 따르면, 가치는 여러 학문분야, 예를 들면, 언어학, 논리학, 경제학, 가치론, 미학 등에서 상이한 의미로 정의된다. 하지만 기호학 이론은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을 그것의 일반 경제에 따라 적합한 지위를 부여하며, 결집하고 화합한다. 또한 그레마스과 쿠르테스는 소쉬르 언어학의 가치는 단어의 가치에 있으며, 논리학은 진리 가치에 있고, 내러티브 담화에서는 대상의 가치가 순환되는 형식에 있다고 말하며, 그러한 순환의 구성은 일련의 가치 전이라고 설명한다(364-367).

한편, T. L. 쇼트(2007)의 정의에 의하면, 가치는 정태적이 아닌 진화적

-
- 2) 퍼스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한 범주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the First) 범주는 다른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존재하는 관념이다. 이는 느낌(Feeling)이 갖는 자질(Quality)이다. 두 번째(the Second) 범주는 모든 범칙과는 무관하게, 설사 그것이 법칙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과 무관하게, 특정한 첫 번째 관념에 의해 존재하는 관념이다. 이는 현상(Phenomenon)의 한 요소로 반응(Reaction)이다. 세 번째(the Third) 범주는 두 번째와 그것의 첫 번째를 연결하는 매개(Medium) 혹은 세 번째(a Third)가 되는 관념으로 현상의 한 요소인 재현(Representation)이다.” (EP2:160). 퍼스의 실재론의 양식과 관련하여 첫 번째 범주인 일차성(Firstness)은 자질의 범주로 가능성(possibility)을 통한 존재양식을 갖는다. 두 번째 범주인 이차성(Secondness)은 반응의 범주로 실재성(actuality)을 통한 실존(existence)의 존재의 양식이다. 이때, 이차성의 실존양식과 비교되는, 일차성의 존재양식인 가능성은 무(nothing)가 아닌 추상성(화)(abstraction)으로 이해된다. 세 번째 범주인 삼차성(Thirdness)은 재현의 범주로 첫째와 둘째를 연결하는 일반성(generality)의 존재양식을 갖는다. 일반성과 관련하여, 이차성의 범주에도 법칙에 순응하는 반응이 나타나지만, 이는 해석을 통한 재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계적(습관적)인 반응의 이차성의 범주에 속한다.

인 측면에서 설명된다. 즉 그에 따르면, 가치는 가치의 타당성을 통해 규정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가치판단을 전제로, 행위적이고, 목적론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가치의 판단은 정신적 차원과 경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치판단(valuation)의 전제가 되는 적절성을 규정하는 요소는 전체 목적과 관련된 개연성과 비용, 이익을 분석한 평가에 의존한다(154). 따라서 쇼트(Short)는 가치는 목적론적인 행위와 연관된 개념으로서 목적론(teleology)이 설명(explanation)과 타당성(justification)의 이분법을 연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 사실(fact)과 가치(value)의 이분법은 그것의 특정한 경우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154-155).

가치 이론은 위의 두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정태적인 구조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적 해석 주체와 연관된 진화적인 과정의 관점이다. 특히 진화적 관점에서, 가치판단의 자율적인 해석 주체는 목적론과 연관되며, 그러한 가치판단은 동시에 규정(determination)이라는 제약적인 측면을 가진다. 이는 자율적 해석 주체가 무한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는 주체라는 점을 암시한다.

소쉬르(1959)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치를 기술한다. 첫째, 동일성(identity)과 연관된 가치의 개념이다. 소쉬르는 체스의 예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즉 체스판에서 나이트(knight)는 그것에 가치가 부여되었을 때에만 체스 게임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요소로 존재한다(110). 마찬가지로, 언어 체계에서 기표와 기의의 결합을 통해 기호는 실체(entity)가 된다. 게임에서 나이트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심지어 그 형체를 닮은 것도 동일한 가치가 부여되면 나이트와 동일한 것이라고 간주된다(110). 소쉬르는 언어 체계에서 동일성은 가치의 개념과 혼합되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로 마찬가지로 말한다(110).

둘째, 의미화(signification)와 연관된 가치의 개념이다. 소쉬르는 차이

를 통해 발생하는 대립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러한 대립에 의해 결정된 가치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에 기초한 소극적 의미의 기호가 적극적인 의미를 얻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기표와 기의의 결합은 자의성에 기반하며, 따라서 둘의 결합은 귀속된 동일한 가치(imputed quality)에 의해서 총체성으로서의 기호의 성격을 띠며, 이는 언어적 실체가 된다. 요약하면, 의미화 과정과 연관된 가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언어적 실체는 소극적으로(negatively) 규정되는 단어 의미로서 언어적 가치를 가지며. 한편 이러한 기호는 다른 기호와의 대립적 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positively) 규정되는 단어 의미로서 가치를 갖는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동일성의 가치를 통해 언어적 실체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의미화가 이루어지고 대립적 관계를 통한 차이에 의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단어의 의미가 규정된다.³⁾

소쉬르가 지적하듯이, 수직과 수평의 도식을 통한 동일한 가치에 대한 두 가지 방식의 설명은 개념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정의할 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의미화와 가치사이의 혼동이다. 소쉬르는 이점에 대하여 둘의 유사점보다는 의미화와 가치가 나타내는 구별의 미세함 때문에 혼동이 생긴다고 언급하며(114) 의미화와 가치사이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3) 소쉬르의 기호이론은 덴마크의 언어학자인 엘름슬레우에 의해서 잘 계승된 것으로 평가된다(아리베, 한국기호학회 자료집 2013: 63). 엘름슬레우는 소쉬르의 기의와 기표를 각각 형식(form)과 실질(substance)로 구분한다. 이 점은 기호가 대상(referent)과 연결되는 지점, 즉 현상과 기호의 만남을 고찰하게 한다. 기의는 기의의 형식(구조)이 개체인 실질로 재현된 경우로 개념이 되고, 역시 기표의 실질인 물리적 소리는 패턴의 형식을 통해 청각적 이미지로 인지되어 기의의 개념인 사고와 연결된다. 이때 기표의 실질은 물리적 세계와 연관되어 있고, 기의의 형식은 언어공동체의 집단적 의식의 구조이다. 언어공동체는 언어 체계의부에서 집단적인 의식을 통해 동일한 개념을 인지한다. 즉 집단성에 의한 동일한 가치가 형식이라는 구조에 내재된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기표 차원에서 언어 공동체에서 소리를 인지하는 패턴도 동일한 가치가 부여되어 인지된다(라이언스 참고, 23-26;173-177;380-389) 이러한 의미화 과정을 통해 소극적으로 단어 의미(sense)를 얻으면, 통합적인 구조 관계(품사적 분류)에서 다른 기호와의 대립(opposition)을 통해, 즉 자신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적극적인 단어 의미(meaning)을 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상위 범주(타입)의 한 종류(토큰)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하위 범주의 다른 구성원과의 비교를 통하여, 통합적 관계의 구조에서 확정된 단어의미(meaning)를 얻으며, 동시에 단어의 가치가 확정된다.

주장한다(114). 이 점은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소쉬르에게 있어서 가치의 개념은 동일성의 문제와 연관된다. 이 점은 표현적(물질적)⁴⁾ 충위와 내용적(개념적) 충위의 결합인 의미화과정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방한은 가치 개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부각한다. “고델(Godel 1957)이 밝힌 바에 의하면, 가치의 개념은 소쉬르의 언어 이론 전개에서 다소 늦은 단계에 도입된다. 그러나 소쉬르는 예민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가치의 개념은 연역의 결과가 아니고, 근본 원리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CLG 전체를 통해서 확인된다. 그것은 몇 가지 다른 시각에서도 고찰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위에서 본 동일성에 대한 답변이다.”(김방한 1998: 161) 이 같은 가치와 관련한 동일성에 대한 이해는 언어적 실체를 존재하게 하는 어떤 형식을 추론하게 한다. 이는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패턴, 혹은 관습적 사고(집단적 의식)로 존재하며, 언어적 실체(entities)에 실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형식은 관습성에 내재하는 일반성⁵⁾에 대한 가치의 인식이 언어적 실체에 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어의 가치와 단어의 의미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한편 퍼스의 진화적인 관점에서 일반성의 재현은 해석체와 상응한다. 일반성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소쉬르의 언어와 퍼스의 기호는 동일한 관점을 공유한다. 또한 법칙에 대한 인식은 일반성이 재현된 체계의 구조적 관계에서 고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쉬르와 퍼스는 수학적 상징체계⁶⁾를 적용한다. 따라서 퍼스에게

4) 엄밀히 말하면, 물질적 측면은 아니다, 왜냐하면 소리의 패턴을 통한 청각적 이미지로 정신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 충위의 기표가 정신의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언어가 온전히 정신 내부의 심리학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5) 퍼스는 삼차성의 존재 양식인 일반성이 연속성(continuity)을 토대로 형성된다는 점을 주장한다(CP 5.205). 이 점에서 관습성은 문화공동체 구성원의 사고 양식의 패턴이 연속성을 통해 일반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습성은 연속성을 토대로 한 일반성의 내재적인 원리가 구성원들의 삶과 의식에 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대수학과 같은 수학의 상징체계는 두 가지 형태의 일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구조주의자들이 수학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수학적 구조주의(mathematical structuralism)에서 드러나는 관습성으로서의 일반성이며, 다른 하나는 퍼스가 주장하는

추상성(화)과 관습성을 통해 재현되는 두 겹의 일반성이 중요한 요소라면, 소쉬르에게는 동일성의 가치로 언어 기호에 재현된 일반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는 이같은 일반성의 재현에 대한 현상적 측면을 퍼스의 집합체(collection), 타입과 토큰, 그리고 기호와 상징의 구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편, 리슈카(1989: 46)에 따르면, 퍼스는 소쉬르와 다르게 가치에 관한 언급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리슈카는 퍼스의 가치 개념이 의미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의미는 가치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 봅시다. (종종 사용되는 구절인)한 단어의 가치를 의미라고 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모든 가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렇게 말해지는 것도 우리는 종종 들어왔습니다)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c1902b:24) (리슈카 1989: 46에서 인용)

리슈카는 퍼스가 세미오시스와 목적과의 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한 반면, 자신의 체계에서 기호와 가치와의 관계는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기술한다. 결론적으로 소쉬르와 퍼스의 가치이론은 일대일 대응으로 비교될 수는 없지만, 위에서 언급된 바처럼, 우리는 소쉬르의 가치의 개념을 포괄적인 측면에서 언어 의미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이해하고, 퍼스의 기호

추상성(화)을 포함하는 관습성으로서의 일반성이다(개념형성과정과 연관된 추상화에 대한 설명은 CP 4.235 참고). 덧붙여서 수학의 추상성(화)은 퍼스가 지적하듯이 수학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즉 수학은 가장 추상적인 과학으로서 사실과 무관하며, 주장하지 않기에 비판이 불가능한 이유로 논리도 아니며, 자질(quality)을 추론하는 가설을 핵심적 요소로 여긴다(퍼스 2010: 2) 따라서 퍼스의 관점에서 일반성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도상성과 관련된 추상성으로 규정되지(determined)않는 일반성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 구조주의자들은 주장하는 일반성은 특정 조건에 의해 관습, 습관화된 일반성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구조주의자들은 추상성(화)을 포함하지 않는 체계에서의 구조, 즉 다른 일반적 체계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조로 수학의 상징체계를 적용한다. 이런 점에서 소쉬르와 퍼스는 대수학과 유비적인 구조로 언어체계를 설명하지만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취한다(퍼스와 수학적 구조주의에 관해서는 후크웨이를 참고하라(1985: 181-207)).

학에 나타나는 목적(purpose), 한정(determination), 해석체(interpretant), 그리고 범주의 개념과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소쉬르와 퍼스는 의미와 관련하여 매우 다른 입장과 태도를 취한다. 소쉬르는 언어 기호의 체계를 통해 구조적 의미를 연구하였다면, 퍼스는 논리학(기호학)을 통해 기호학적 실재론에 기반하여 의미를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 기호를 정태적인 관점과 진화적인 관점의, 두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두 기호학자는, 실제로도 만난 적이 없지만, 가치의 문제를 포함하여 사상적으로도 만날 수 없는 매우 상이한 기호체계를 수립하였다. 두 학자의 기호연구는 단지 이원론과 삼원론을 통한 기호의 이해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명목론(nominalism)과 실재론(realism)의 철학적 관점의 비교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⁷⁾ 이러한 맥락에서 T. L. 쇼트는 두 사상가가 양립할 수 없는 점을 매우 명시적으로 설명한다(2007: 16-21).

한편, 예외적으로 몇몇의 퍼스 학자들은 소쉬르의 언어적 가치가 퍼스의 해석체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그 중에 제임즈 리슈카(1989), 크리스천 세터(1979)⁸⁾, 마이클 샤피로(1983) 등이 있다. 샤피로를 인용하면, “퍼스의 (기호)개념에서 해석체는 명백하게 핵심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와 엄밀하게 비교할 만한 것이 소쉬르의 기호 개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하지만 언어적 가치(*valeur linguistique*)에 대한 소쉬르의 시작 단계인[미완성의] 아이디어(*inchoate ideas*)와는 예외적으로 비교할 만하다).”(샤피로 1998: 5)

지금까지 살펴 본 가치 개념을 토대로 논의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공시적 동일성(synchronic identity)의 개념을 살펴보고, 의미화(signification)과정을 집단성⁹⁾(collectivity)과 퍼스의 개념인 집합체

7) 실재의 개념과 연관한 명목론과 실재론의 비교는 발(Waal)을 참고하라(2001:47-48).

8) 리슈카에 따르면, 세터는 해석체보다는 퍼스의 삼차성이나 중재(mediation)의 개념을 통해서 비교하였으나 논의를 깊게 발전시키지는 못했다고 언급한다(1989:53)

9)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에 제시된 집단성(collectivity)의 개념은 집단적 의식, 패턴으

(collection)의 존재론을 통해 고찰한다. 둘째, 타입과 토큰 기호를 통해 일반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의미화 과정을 살펴본다. 셋째, 기호와 상징의 비교를 통해 동일성(identity)과 유사성(similarity)의 가치에 대하여 논하며 끝으로 가치와 가치판단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II. 동일성, 실재, 가치

소쉬르는 『일반언어학 강의』에서 언어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의 세 개념을 설명하며 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인다. 즉 동일성, 실재, 가치의 개념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치와 동일성의 개념은 혼합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실재의 개념도 두 요소와 연동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세 개념의 관계를 우선 소쉬르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24시간 간격으로 떠나는 오후 8시 25분 제네바 출발 파리행 기차 두 대가 있다. 소쉬르에 의하면 이 두 대의 기차는 동일하다. 그 이유는 물리적으로는 다른 기장이 다른 기차를 운행하지만 동일한 조건(same conditions)을 충족하면 동일한 실체(same entities)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 때, 실체는 그러한 동일한 조건을 실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쉬르가 말하는 공시적인 동일성(identities)은 무엇인가? 시간적¹⁰⁾, 혹은 물리적인¹¹⁾ 동일성이 아닌 한 체계에 존재하는 동일성을 말한다. 즉 두 문장¹²⁾이 동일한 요소(same element)를 포함하고

로 관습성을 갖고 언어체계 외부에 존재하는 가치로, 연상을 통한 내포적 의미나 느낌으로 즉각적인 해석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로 이해한다.

10) 소쉬르의 예를 들면, 불어 *pas(not)*는 라틴어 *passum*과 연결되는 통시적 동일성이 아니다(1959:107).

11) 소쉬르는 동일한 소리가 두 문장에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는 동일성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소리와 개념이 동일성의 증거라면, 그 반대는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a force du vent* 과 *a bout de force* 에서의 *force* 의 의미가 다르다. 단지 동일성에 대한 증거일 뿐이다(1959:108).

12) 두 문장, *Je ne sais pas / Ne dites pas cela* 에서 *pas*가 갖는 동일한 요소를 말한다(1959:108).

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의해 동등하게 만족하는 동일성으로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두 문장 사이의 동일한 요소를 지각하게 하는 요인은 외부적 요소가 아닌 체계 내에서의 특정한 조건에 의존한다. 그러한 동일한 조건은 일종의 규칙성(regularity)으로 그러한 조건을 실현하고 있는 실체에 대하여 조건적으로 반응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는 언어 실체에 투사된 언어사용자들의 집단적 의식으로 가치판단(valuation)이 된 언어적 사실이 된다. 이 점은 소쉬르의 언어 연구의 목적과 기호학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게 한다. 즉, 소쉬르는 기호적 방법을 통하여 언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언어학자이다. 따라서 언어의 연구영역을 심리적인 내적 현상이나 역사적 맥락이 아닌 언어의 체계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호로서의 언어 연구는 상위 범주에서 일반 심리학에 속하며, 구체적으로 사회 심리학에 속한다는 점을 소쉬르는 보여주었고(1959:16), 더 나아가 언어학을 분류학문(classificatory science)으로 구별한 점은 퍼스가 제시한 학문체계에서 언어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소쉬르 1959: 9; 리슈카 1996: 6).

그러므로 동일성의 문제는 언어공동체의 집단적 의식이 관습성을 토대로 언어적 사실에 투영된(가치가 부여된), 언어적 실체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언어 단위(unit)는 언어 공동체의 의식에 의해 가치가 부여된 일반성이 실재하는 실체(entity)가 된다. 이러한 일반성의 실재(realities)를 체현하는 개체로서의 언어적 실체는 기표와 기의의 이원적 요소로 구별되는 기호이다. 특히 언어 체계에서 언어적 실체를 사항(term)¹³⁾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사항(단어기호)은 조건화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기표는 소리의 패턴에 귀속된 자질(imputed quality)¹⁴⁾로 언어 공동체 관습성을 재현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쉬르는 소리의 패턴과 개념이 종이의 앞면

13) 체계 내에서의 사항(term)에 대한 설명은 소쉬르(1959:113), 김방한(1998:162) 참고하라. 퍼스는 이를 단순히 일반명사(class-name, proper-name)라고 부른다(CP 8.337)

14) 귀속된 자질은 퍼스의 일차성을 포함한 삼차성의 범주에 속하며 단어기호에 내재된 성질로 이해한다.

과 뒷면처럼 분리할 수 없으며, 이를 기표와 기의의 결합인 기호의 총체성(totality)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의미화(signification)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표와 기의의 결합을 통해 설명된다.

이 때, 동일성에 대한 소쉬르의 설명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동등성(equality)¹⁵⁾으로 나타난다. 즉 소쉬르에게 가치는 가치판단이 결여된 구조적 관계에 존재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가치는 자율적 해석 주체가 아닌 체계 내에서의 기능적인 관계적 요소로 언어적 실체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가치는 동등성에 기초한 단어들 사이의 균등한 관계로 정태적 가치가 된다. 이러한 점은 소쉬르의 언어 연구의 관심이 언어기호의 진화의 측면보다는 언어상태(language-state)에 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부여된 가치로 실재하는 일반성이 동일하게 언어적 실체에 작동한다. 즉 언어 체계에서 가치의 이동 혹은 교환은 동일성에 기초한다. 결과적으로 의미의 확장이 수평과 수직의 두 축에서 이루어진다. 이 점은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그렇다면 소쉬르의 동일성의 문제를 의미화와 관련한 퍼스의 집합체(collection)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자. 퍼스의 집합체의 구분에 따르면, 두 가지 형태의 집합체가 존재한다. 하나는 ‘gath’¹⁶⁾로 본질을 포함하지 않는 실존의 형태이며 다른 구성원들과 동시에 존재한다. 반면 ‘sam’¹⁷⁾의 본질은 특정한(귀속된) 자질을 가지는 실존의 형태로, 이같은 실존적 주체는 모두 이러한 본질을 가진 구성원이 된다(퍼스 2010: 101). 이를 언어적 실체에 적용하면, 각 실체는 특정한(귀속된) 자질을 갖는다. 즉 체계의 부분인 구성원은 일대일 대응이 되는 동일한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의 본질

15) 퍼스는 동일성(identity)의 개념을 동등성(equality)의 종류로, ‘a는 b이다’가 참이고, 그 역인 ‘b는 a이다’도 참이 되는, 논리적인 동일성으로 설명한다(퍼스 W2: 366-367).

16) 퍼스는 이 용어를 ‘gather’에서 er를 생략하고 만들었다. 일차성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이차성, 즉 본질을 포함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진다(퍼스 2010: 101-102).

17) 퍼스는 gath와 동일한 방식으로 ‘sam’은 same에서 e를 생략하여 만들었다. 이는 일차성을 포함하는 구성원들의 관계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각 구성원들을 기술할 수 있는 적절한 이름으로서의 전체(whole)의 의미를 갖는다(퍼스 2010: 102-102).

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때 ‘sam’의 본질은 실체가 파괴되어도 존재한다. 반면 ‘gath’는 본질이 없기에 그것의 존재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존한다. 따라서 ‘sam’이 있는 곳이면 모든 구성원이 존재한다. 이를 기호의 넓이(breadth)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정신이 폭이 넓다’라는 의미는 많은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정신의 성격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폭 넓고 깊게 안다는 것은 매우 많은 주제들에 정통해 있으며, 또한 깊게 그 주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기호의 넓이는 귀속된(imputed) 일차성을 가지며, 이러한 귀속된 일차성을 의미화(signification) 혹은 깊이(depth)라고 부른다(퍼스 2010:102).

집합체에 대한 퍼스의 설명은 언어가 대수학(algebra)¹⁸⁾과 유사한 상징 체계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언어의 체계는 바로 이러한 전체라는 형식(form)을 갖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조건이 만드는 체계 안에서, 소쉬르의 기차의 예를 들면, 출발시간과 여정이라는 동일한 조건을 만족하는 개별적인 구성원이 존재하는 반면,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구성원도 존재한다. 이 경우 전자는 귀속된 자질을 갖는 구성원으로 유형과 대응하고, 후자는 귀속된 자질을 갖지 않는 구성원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의미가 없는 존재로 소멸된다. 이는 모든 기차에 귀속되는 자질로 특정한 기차를 인식하는 범주적인 틀로 기능한다. 그러면 두 기차를 동일하게 생각하게 하는 요인은 법칙으로서의 기본 범주인 그 기차에 부여되어 이들을 동일한(same) 조건으로 인식하게 하는, 귀속된 자질에 의해서이다. 이러한 규칙으로서의 귀속된 자질은 외부적 요소가 변해도 동일하게 인식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가령 사탕의 예에서 물리적 측면이 달라도, 어떤 대상을 여전히 사탕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대상에 귀속된 사탕이라는 자질에 의한 것이다. 이러

18) 소쉬르와 퍼스는 언어가 대수학이라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두 기호학자는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소쉬르1959:122; CP 8.313). 하지만 퍼스가 인간을 포함하는 언어 체계로 우주론적 상징이론을 지향했다면, 소쉬르는 언어 체계에서 언어의 형식에 관심을 가졌다. 이같은 상이한 관심과 태도에 기초한 두 사람의 연구 결과와 그 효과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인간의 사유를 확장하게 한다.

한 자질은 퍼스의 일차성을 포함하는 삼차성에 대한 범주로 단어에서 개념적 단위인 의소¹⁹⁾(*seme; rheme*)로 가치판단이 되어(해석된, 혹은 의미화된) 인식된다. 그렇다면 단어가 가지는 이러한 자질은 어디서 온 것인가? 문화적 구성원들의 습관, 혹은 관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패턴, 혹은 유형으로서의 범주적 개념으로 기능한다. 퍼스의 관점에서 보면, 일차성의 범주에 속하는 분해되지 않는 총체적 느낌으로서 즉각적 해석의 효과이다. 이것이 단어의 가치, 즉 단어의 의미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쇼트(Short)에 따라 가치를 판단하는 해석체를 중재로 단어의 의미가 규정된다. 따라서 퍼스에게 단어의 의미는 느낌의 일차성을 포함하는 해석과 연관된 삼차성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맥락에서, 소쉬르의 공시적 동일성은 일차성을 포함하지 않은 삼차성의 범주로 퍼스의 단어의 의미와 구별된다. 즉 이는 대상과 분리된 단어가 일반적 법칙(자의성)에 토대를 둔 기의와 기표의 결합으로 언어 체계의 구조적 관계에서 단어의 의미가 확정된다는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반면 퍼스의 기호체계에서 단어기호가 갖는 삼차성의 개념은 일차성(추상화)을 포함한다. 즉 해석체로서의 단어는 대상과 기호를 연결하는 관념이다. 결론적으로 퍼스적 관점에서 동일성과 가치는 언어 체계 외부의 경험을 개념화하는 과정으로 일차성을 토대로 유사성의 가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개념화 과정에서 연속성(continuity)에 기반 한 일반성이 부각된다. 이 점은 소쉬르의 기호와 상징의 구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Ⅲ. 타입과 토큰

19) 의미소(*seme; rheme*)는 퍼스의 삼분법에 따른 기호의 분류 중 해석능력에 따른 기호로, 일차성을 포함하는 단어기호에 해당한다.

본 장은 하나의 의문점으로 시작한다. 왜 소쉬르는 상징을 언어 기호와 구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소쉬르1959: 68).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가치 개념이 타입과 토큰 기호를 통해 논의된다. 소쉬르의 설명에 의하면, 상징은 텅 빈 기표가 아니라 기의와 동기화되는(motivated) 기호이다(68). 따라서 상징은 자의성의 원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언어 기호와 구별된다. 소쉬르가 상징의 예로 든 것은 정의를 상징하는 양팔 저울이다. 이 양팔 저울은 언어 기호와 다르게 다른 대상으로 대치될 수 없다. 가령, 정의의 상징인 양팔 저울은 마차로 대치될 수 없다(68). 이같은 대체 불가능성은 소쉬르에게 언어 기호와 상징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대체불가능성은 기표와 기의 사이를 연결하는 동기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같은 점은 상징이 갖는 기표의 물질적 자질²⁰⁾(material quality)로 기표와 기의의 동기화가 설명된다는 점을 함축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상징은 언어 기호와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표와 기의가 결합된다. 즉 개념이 기표에 귀속되는 자질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표가 갖는 물질성으로 인해 개념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상징의 동기화는 상대적으로 언어 기호의 자의성이 기표의 물질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진술이 된다.

이같은 설명은 소쉬르의 언어를 통한 소통모델에서 확인된다. 소쉬르의 설명에 의하면, 언어사용자 A의 뇌에서 정신적 사실들(개념들)이 언어적 소리들(소리의 패턴들)의 재현과 연결되어 표현들을 만들어내는 회로가 열린다. 그러면 하나의 개념은 이에 상응하는 소리 이미지를 연다.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이 생리학적, 물리적 현상을 거쳐 B의 귀에 도달하면, 그 반대방향으로 회로가 이어진다(1959: 11-12). 따라서 자의성의 개념은 기의가 기표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한 의미화를 보여준다. 이런 점

20) 퍼스는 인지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호의 물질적 자질(material qualities)을 설명한다. 즉 이는 기의화된 개념적 요소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재현의 기능과는 관계가 없는, 개념적 속성과는 분리되는 물질적 속성이다. 퍼스는, 사람이라는 단어, *man*에서 세 개의 글자인, m-a-n을 그 예로 든다(CP 5.287).

에 비추어 볼 때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균등하지 않다. 즉 기표의 물질성이 간과된 기의의 정신적 요소에 무게 중심이 실린다. 이 같은 원리에서 기표와 기의를 연결하는 자의성의 개념은 설득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의성의 개념은 기표와 기의를 연결하는 일반성의 개념과 상통하며, 이러한 일반성은 언어 체계 외부에서, 앞에서 논했듯이, 공동체의 삶의 연속성을 포함하는 관습성을 재현한 것이다.

이러한 자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둘의 결합은 언어 체계에서 동일한 개념적 가치를 갖는 것을 전제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소리의 패턴과 개념을 결합한 단어기호(단어의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효과를 발생한다. 의미화는 정신적 영역의 내부와 외부의 선택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리의 패턴에 귀속되는 자질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는 앞에서 설명된 바처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퍼스의 개념인 집합체²¹⁾기호(collection)에 의한 것이며, 이는 언어적 실체인 각 구성원들을 지각하는 한 유형이 된다.

이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상위 범주인 유형이 두 축에서 동일한 구조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가령, 오후 8시 25분 제네바 출발 파리행 기차라는 이름의 유형으로 동일한 가치가 두 상이한 개별적 기차에 귀속되어 두 기차가 같은 기차로 간주되는 것처럼, 개별적인 기차도 그러한 동일한 귀속적인 가치를 통해 “오후 8시 25분 제네바 출발 파리행 기차”라는 이름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두 축에서의 동일한 가치는 각 언어적 실체를 다른 실체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가치는 두 상이한 구성원을 연결하면서도, 동시에 전체와 각 구성원을 연결한다. 이러한 가치의 성격은 퍼스의 삼차성에 속하는 성질로서 두 대상을 연결하는 중재의 기능을 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쉬르의 단어기호는 전체와 부분의 사고를 유발하는 타입과 토큰의 관계를 통해

21) 소쉬르는 공동체 의식과 관련하여, “언어는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의 뇌에 축적되어 저장된 인상의 총합의 형식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1959:19). 따라서 언어 존재의 양식은 집합적인 패턴(collective pattern)으로 나타난다.

이해할 수 있다.²²⁾ 소쉬르는, 언어는 형식(form)으로 존재하며, 이를 연구하는 것이 공시 언어학임을 강조한다(19). 그러므로 소쉬르에게 총합으로서의 언어의 형식은 언어적 실체라는 구성원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

타입과 토큰이란 표현은 퍼스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퍼스의 설명에 따르면, 타입은 서로 다른 형태의 단어들을 하나로 인식하게 하는 혹은 존재하게 하는 형식이다(CP 4.537). 그리고 그러한 형식을 체현한 것이 토큰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타입과 토큰의 기호 형태는 각각 삼차성과 이차성의 범주에 속하며, 이 때, 일종의 법칙의 재현인 타입기호는 토큰의 체현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퍼스에게 타입과 토큰의 관계는 수학의 집합론에서, 전체와 부분, 즉 이름과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짝수라는 집합은 {2,4,6...} 이라는 구성원을 갖는다. 이때 짝수라는 형식은 구성원을 통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구성원 자체는 짝수가 된다. 하지만 역으로 짝수가 그 구성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퍼스에게서 타입과 토큰의 관계는 소쉬르의 동일성(동등성)과 구별되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둘의 관계는 동등성이 아닌 유사성에 기초한다.

짝수와 각 구성원의 관계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계열적과 통합적 관계로 표층적 차원에서 소쉬르의 언어체계와 퍼스의 집합체의 개념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심층적 차원에서는 두 축의 관계가 각각 동일성과 유사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띤다. 즉, 퍼스는 타입과 토큰의 관계를 유사성에 기초한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이해한 반면, 소쉬르는 구조적 동일성(동등성)에 기초하여 타입이 토큰과의 동일시로 나타난다. 이같은 점은 실재의 개념을 개별적인 언어적 실체를 통해 설명하는 명목론과 언어의 개별적 실체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

22)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수직관계에서 의미를 만드는 어휘소의 관계는 하의성(hyponymy)과 부분-전체의 관계로 구분된다. 즉 전자는 상위범주의 어휘소가 하위 범주의 어휘소인 개체로 나타나는 경우이며(소와 동물의 관계,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반면 후자는 팔과 몸의 관계처럼 실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이언스 2011: 457;491). 그러므로 소쉬르에게는 전자의 경우를 통해 타입과 토큰의 관계가 설명되고, 퍼스에게는 후자의 경우인 실존적 연결을 통해 타입과 토큰(복제)의 관계가 설명된다.

재의 개념인 실재론으로 구별되는 언어현상을 고찰하게 한다. 특히 『일반 언어학 강의』에 나타난 명목론의 관점은 소쉬르가 형식이 재현된 토큰으로서의 언어적 실체를 실재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 점에서 그렇다(1959: 100).

이런 맥락에서 소쉬르에게 상징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외적인 방식으로 기표와 기의가 연결되어 있다. 즉 둘의 관계는 일종의 자연적인 연결²³⁾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상징은 소쉬르에게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더군다나 상징은 체계속에서 의미가 발생하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체계 외부의 언어사용자의 맥락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기호처럼 동일한 가치를 통해 대치 가능한 기능적 요소가 아니라 대치할 수 없는 유일한 물질적 자질을 갖는 기표(즉 비언어적 기표)가 된다. 소쉬르의 기호와 상징의 구별이 타입과 토큰 기호를 통해 시사하는 것은 언어기호가 개념적으로 동일한 가치에 의해 작동하는 반면, 상징은 해석자의 지각, 인지과정을 통한 유사성의 가치에 의해 작동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쉬르에게 상징과 언어 기호는 이러한 방식으로 상이한 의미화과정을 보여준다.

언어 기호와 상징의 차이를 통해 논의된 기표와 기의가 연결되는 방식은 동일성과 가치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즉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의미화과정에서 선택된 기표(소리의 패턴)는 귀속된 자질을 통해 기의(개념)와의 동일시가 이루어진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 차원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이는 심리학에서의 유사성을 토대로 한 연상적인(associative) 원리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수직적(계열적) 관계를 통해 동일시되는 과정과 연관된다. 다른 말로 하면 소쉬르에게 중요한 것은 개념이 형성되는, 즉 개념을 분석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개념(사고)이 소리의 패턴(소리)에 연결되는 의미화과정이다. 따라서 언어 체계

23) 피스는 상징을 습관, 혹은 습관적 사고라고 지적한다. 즉 이미 형성된 습관화된 개념적 사고를 언급하며 지식자체가 습관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징은 지표, 즉 도상을 내포하는 지표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역설한다(CP 4.531).

에서 형식과 실체(질)의 관계는 구조적 동일성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형식과 실체가 동등하다는 점이며, 따라서, 형식이 실체와 같고, 그 역도 참인 경우를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타입과 토큰이 동일시되는, 형식과 실체 사이의 개념적 가치의 동일성을 말한다. 따라서 개체로서의 언어적 실체는 일반성을 재현하는 실체의 개념을 내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얻어진 의미화는 소극적으로 정의되는 기호의 의미, 퍼스식으로, 말하면 뜻(sense)의미가 된다.

하지만 의미화는 가치 자체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소쉬르는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논증하기 위하여 소쉬르는 공시적 관점에서 두 구조적 관계, 즉 통합적 관계와 연상적(계열적)관계에서 가치의 전이를 통해 의미가 변화하는(확장되거나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가치는 의미화의 상위범주로 기표와 기의, 그리고 두 기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일반성의 규칙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터(Setter)는 가치가 퍼스의 삼차성, 즉 지성, 혹은 인지와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시 언어학에서 가치가 전이되는 두 관계는 개념적 동일성을 토대로 한다. 이 점은 새로운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언어적 지식을 증가하는 관점에서 사전적²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쉬르가 들고 있는 예는 경제학에서 교환가치의 개념에 기반한다. 소쉬르의 두 예²⁵⁾는 첫째, 상이한 사물사이에서의 가치의 교환이다. 둘째 유사한 사물사이에서의 가치의 교환이다. 전자는 내적 교환(interchang

24) 예코는 사전적 지식과 백과사전적 지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명목론적 관점에서 구조적인 의미론과 실체론적 관점에서 맥락적 의미론에 관하여 논의한다. 한 예로 ‘오리너구리’를 명명하는 과정에 얽힌 에피소드를 통해 명명과 분류에 관한 언어의 기능과 개념형성과정과의 관계를 상세하게 논한다(2006: 349-402).

25) 피르너는 소쉬르가 이 예를 동시대의 사회학자인 타르드의 글에서 차용했을 높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소쉬르의 언어이론이 경제학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역설한다(1998: 211-212). 본 논문도 피르너의 입장과 동일한 관점을 취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언어 체계가 대수학의 한 유형으로 복잡한 언어적 실체들로 구성되었다고 말한 소쉬르의 진술에 근거하여 퍼스의 삼차성 범주 개념을 통해 소쉬르의 언어적 가치를 다루었다(소쉬르 1959:122).

e)²⁶⁾으로서 통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이다. 후자는 외적 교환(exchange)²⁷⁾로서 계열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이다. 이 때 두 교환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개념적 동일성의 가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리슈카는 퍼스 기호학적 관점에서 내적교환을 의미의 외연적 확장, 즉 기호의 넓이로, 후자의 외적교환을 의미의 내포적 확장, 즉 기호의 깊이로 해석한다(리슈카 1989:54). 퍼스식으로 말하면 동일한 가치의 전이를 통한 언어적 지식의 확장과 이해는 해석체를 중재로 한 해석의 과정이자 번역이다.

해석체는 상징기호를 통해 촉발되는 기호로 상징의 관습성과 연관된다. 즉 관습성의 습관적 의식을 통해 개념이 순환되는 과정으로서의 번역이다. 이러한 점은 상징적 가치의 교환이 개념적 동일성의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함축한다.

퍼스는 이러한 점을 동일성의 가치가 아닌 유사성에 기반한 상징의 가치를 통해 진화적 관점에서의 상징의 힘을 역설한다. 그러므로 ‘추상성(화)’을 포함한 상징성은 복제(replica)를 통해 체현됨으로써 추상적 자질이 개별기호인 복제를 통해 발현(present)된다. 의미화 차원에서 소쉬르가 기호와 상징의 구별을 통해 기표의 물질성을 언급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언어 기호가 상징에 속한다고 생각한 퍼스와 언어 기호와 상징을 구별한 소쉬르의 사유는 동일성과 유사성에 대한 가치판단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즉, 전체와 부분의 대한 사유와 균등한 자질의 동일성에 대한 사유로 두 사람의 상이한 가치체계가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소쉬르에게 나타난 타입과 토큰의 동일시를 통한 동일성은 개별성에 대한 가치, 더 정확히 말하면 추상성(화)을 포함하는 일반성에 대한 가치가 결여되어 있

26) 구조적 동일성을 토대로 한 가치의 교환이라는 점에서 내적(internal)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구성원(개체)의 대립을 통해 의미(가치)가 결정된다. 이러한 의미(가치)는 교환을 통한 대립에 의해 소극적 의미(가치)가 적극적으로 확정(규정)되는 관계적 의미(가치)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27) 현상과 정신의 두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교환이라는 점에서 외적(external)이라고 할 수 있다.

음을 보여준다.

소쉬르의 언어 기호와 구별되는 상징의 개념은 퍼스의 진화적인 관점에서 상징을 고찰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정태적 측면의 관습성이 아닌, 관습적 사고를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이 되는, 도상성으로 재현되는 추상성(화)²⁸⁾을 포함한 상징의 관습성에 주목하게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개념적 동일성에 의한 상징성이 아닌, 기표의 물질성에 기반한 개념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상징에 주목하게 한다. 이때 추상성(화)을 포함한 상징성은 생명력과 뼈대의 역할을 하는 상징의 복제(replica)를 통해 재현된다. 따라서 퍼스에게 가치는 지속적인 가치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가치이며 이는 기호의 실제적 효과로서의 의미²⁹⁾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퍼스의 가치의 개념은 세미오시스와 연관되어 있다. 즉 세미오시스는 논리적 해석체를 통해 귀속된 자질을 변화시키는 진화의 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기호의 과정이다.

요약하면, 소쉬르의 언어적 가치는 일반성을 존재 양식으로 하는 퍼스의 삼차성과 연관되지만, 퍼스의 삼차성이 연속성의 원리에 기반한 일반성이라는 존재 양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퍼스의 삼차성의 개념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소쉬르의 개념적 동일성의 가치에 기반한 언어적 실체인 토큰(token)은 퍼스의 인지적 유사성의 가치에 기반한 복제(replica)와는 구별된다.

IV. 결론을 대신하며: 가치(value)에서 가치판단(valuation)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퍼스의 범주 개념을 기반으로 소쉬르의 언어가치 개

28) 상징과 비교하여 추상성(화)에 대한 유의미성을 주장하는 연구로는 스트전펠트 참고하라 (2007:11장).

29) 퍼스는 의미를 세 층위로 구분한다. 뜻 의미(sense), 문자적 의미(meaning), 유의미성(significance)인데, 세 번째 층위는 삼차성에 토대를 둔 의미로 대상의 개념이 갖는 실제적 효과로서 맥락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리슈카 1996: 79-81 참고).

념을 일반성의 재현이라는 언어적 현상을 통해 고찰하였다. 아울러 기호와 상징의 구별을 통해 타입과 토큰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논의를 통하여 소쉬르와 퍼스에게 드러나는 실재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소쉬르의 경우, 실재의 개념은 언어의 개별적인 실체에서만 존재한다. 반면, 퍼스의 경우, 실재의 개념은 언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더 나아가 나와 타자와의 실존적 관계를 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다른 말로하면 소쉬르의 관점에서 의미는 언어의 일반적 법칙을 통한 언어 체계에서의 구조적인 관계에 존재하며, 퍼스에게서 의미는 언어 체계의 외부에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 체계의 외부에 존재하는 의미는 개념적 동일성에 기반한 가치가 아니라 경험세계의 현상적 요소를 포함하는 자질의 유사성에 기반한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 이같은 유사성의 가치는 해석을 통한 가치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는 기표층위의 변화에 기반 한 번역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실존적 관계를 통한 새로운 가치의 발견이며, 상징의 중재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쉬르와 퍼스의 언어 기호와 상징의 개념은 각각 언어적 가치와 삼차성의 범주개념을 기반으로 일반성을 재현하는 타입과 그것이 체현된(embodied) 토큰이라는 기호를 통해 비교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진화에 관심을 둔 퍼스의 철학적 사유와 언어변화에 관심이 없었던 소쉬르의 공시적 관점의 언어 연구는 상이한 가치체계를 보여주었다. 즉 소쉬르에게 가치가 정태적이며, 따라서 언어적 지식을 제공한다면, 퍼스에게 가치는 의미의 효과와 연관되며, 가치판단의 역동적이고 진화적인 측면을 통해 삶에 실제적 영향을 미친다. 즉 규범적 가치가 이끄는 자아절제(self-control) 효과로 이어진다.

퍼스가 기호와 관련하여 특별히 가치라는 이론을 정립하지 않은 이유는 가치의 개념이 행위와 연관되는 포괄적인 의미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한다. 담화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치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추상적 자질을 상호주관적 관계 속에서 규정

(determination)함으로써 일반화하는 개념화(conceptualization)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가치가 이끄는 진화하는 삶은 자아절제라는 규범적 가치의 효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퍼스에게 가치는 해석체를 통한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역동적인 개념이 된다.

결론적으로 소쉬르가 상징기호의 물질성을 인식하고 상징을 텅 빈 기표가 아닌 의미로 가득 찬 기호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소쉬르가 퍼스와 동일한 관점으로 추상성(화)을 포함한 관습성을 통해 상징을 이해했다고 추론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쉬르의 전설에 관한 서사텍스트³⁰⁾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소쉬르의 언어 연구는 공식적 관점을 기반으로, 대수학의 수학적 구조를 통해 언어적 실체를 연구하는 데 집중되었다. 즉 언어 체계에 실재하는 일반성에 대한 연구로, 즉 이름과 구성원간의 관계로, 발화적 측면의 언어의 실체(substance)가 아닌 체계안의 언어의 형식(form)에 소쉬르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 동일성의 언어적 가치의 개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쉬르는 상징을 언어 기호와 구별하였고, 자의성에 기반 한 정신의 외부와 내부의 결합으로 구성된 기호이론을 통하여 언어의 형식을 연구하였다. 표층적 차원에서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연구는, 관심과 연구 영역의 차이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상충되지도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의 차이는 추상화 과정을 포함한 연속성에 기반 한 일반성의 재현과 관습성에 기반 한 일반성의 재현이라는 보다 심층적 차원의 기호연구를 고찰하게 하며, 이는 실재론과 명목론이라는 큰 틀에서 가치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30) 아나그라프와 전설에 관한 소쉬르 연구로는, 김성도(1999), 『로고스에서 뫼토스로: 소쉬르 사상의 새로운 지평』를 참고하라.

참고문헌

- 김방한, 『소쉬르: 현대 언어학의 원류』, 민음사, 1998.
- 김성도, 『로고스에서 뫼토스까지: 소쉬르 사상의 새로운 지평』, 한길사, 1999.
- 들르달, 제라드, 「소쉬르와 퍼스의 언어사상」, 『소쉬르의 현대적 이해를 위하여』, 252-260, 정병기·김현권 편역, 박이정, 1998.
- 라이언스, 존, 『의미론 1: 의미 연구의 기초』, 강범모 옮김, 한국문화사, 2011.
- 에코, 움베르토, 『칸트와 오리너구리』, 박여성 옮김, 열린책들, 2006.
- 괴르너, 콘라드, 「뒤르켐, 타르드의 사회학과 소쉬르」, 『소쉬르의 현대적 이해를 위하여』, 192-213, 정병기·김현권 편역, 박이정, 1998.
- 아리베, 미셸, 「소쉬르-그레마스: 소쉬르의 독자, 그레마스」, 『소쉬르 사상의 인문학 적 유산』 55-65, 소쉬르 사후 100주년 한국기호학회 2013년 가을학술대회 자료집.
- de Saussure, Ferdinand,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eds. C. Bally and A. Sechehaye. trans. Wade Bakin. New York; Toronto; London: McGraw-Hill Company. 1959.
- de Waal, Cornelis, *Peirce*. Australia; Canada; Unites Sates: WADSWORTH. 2001.
- Greimas, A. J. and J. Courtés, *Semiotics and Language*. trans. Larry Crist et a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 Guiraud, Pierre, *Semiology*. trans. by G.Gros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5.
- Hookway, Christopher, *Peirce*. London, Boston, Melbourne and Henley: Routledge and Kegan Paul. 1985.
- Liszka, James Jakób,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Semeiotic of Charles Sanders Peirc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The Semiotic of Myth: A Critical Study of the Symbol*.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 Peirce, Charles 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 Peirce*, 8 vols., eds. C. Hartshorne, P. Weiss, and A. Burk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ited as CP followed by volume and paragraph number], 1931-58.
- _____,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 2. (1893-1913), ed. The Peirce Edition Project. Bloomington: Indiana

- University Press. 1998. [cited as *EP*]
- _____, *Writings of Charles S. Peirce: a Chronological Edition* vol. 2. eds. C. Moore et a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 _____, *Philosophy of Mathematics*. ed. M.E. Moor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10.
- Shapiro, Michael, “A Few Remarks on Jakobson As a Student of Peirce” in *The Peirce Seminar Papers*. M. Shapiro ed. New York; Berlin; Vienna; Paris: Peter Lang, 1998. pp. 1-10.
- Short, T. L., *Peirce's Theory of Sig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Stjernfelt, Frederik, *Diagrammatology: An Investigation on the Borderlines of Phenomenology, Ontology, and Semiotics*. XX: Springer. 2007.
- Stetter, Christian, “Peirce und Saussure”, *Kodikas/Code* 1: 124-149, 1979.

Saussure's Theory of Value from Peirce's Semiotic Perspective: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ncepts of Linguistic Value and Thirdness

Lee, Yun-Hee

The conceptions of sign in Saussure and in Peirce are considered incomparable because of the dyadic and the triadic components of sign respectively: the two components comprising signifier and signified and the three components comprising sign, object, and interpretant. Actually, however, Saussure's inchoate ideas about linguistic value can be compared with the concept of interpretant in Peirce.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le comparison of the two concepts based on the phenomenon of representation of generality in the linguistic sign, with the hypothesis that there are two possible concepts of generality which are based on conventionality and continuity in Saussure and in Peirce, respectively.

The paper will develop the argument on discussing Saussure's concepts of identities, realities and values with an interlocking relation of the three. The paper thus argues that the concept of linguistic value has common ground with the concept of interpretant based on Thirdness in Peirce's theory of category as mediation between sign and object; however, the two conceptions of linguistic value and Thirdness differ in terms of the dyadic structure of language as a form and the triadic concept in semiosis as evolution of language. In assessing this I will look into the ontology of collection with type and token in Peirce's conception of sign, thus explaining how conventionality is related to abstraction for creative thinking

based on value in similarity rather than that in identity.

Consequently, this idea leads to evolution of language by valuation instead of static value in the linguistic system. Ultimately, the concepts of linguistic value and Thirdness share the common feature of connectedness in the form of mediation between sign and object. But the dimension of study of sign is derived from different interests and concerns from each of these. One concerns only linguistic form and the other concerns semiosis in evolution of language in teleological development. Naturally, it is this delimitation that causes the sign study to proceed in different directions.

열쇠어: 언어가치, 소쉬르, 퍼스, 일반성, 유사성, 동일성, 가치판단, 삼차성, 타입, 토큰, 추상성(화), 실재
linguistic value, Saussure, C. S Peirce, generality, similarity, identity, valuation, thirdness, type, token, abstraction, reality

투고일 : 2013.10.15 / 심사일 : 2013.11.30 / 심사완료일 : 2013.12.10